호매칼럼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김 명 화
/교육학박사·동화작가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문정희 시인의 길 한 부분이다.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의 재가 되기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 아침보다는 귀가하는 새들의 모습이 더 정겹고/ 강을 위에 저무는 저녁노을이 아름다운 것도/ 이제 하루해가 끝났기 때문이다.'

시 한 편을 만나며 여름이 시작되는 길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문정희 시인의 길은 인생의 길을 많이 걸어본 뒤에 쓰여진 시로 다가온다. 길은 많은 사연을 담고 있다. 길을 떠나는 사람도, 길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사연을 담고 있다.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주제로 열린 시립미술관 전시는 그동안의 많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길은 무수한 사연을 담고 있다. 혼자서 걷는 길, 친구와 함께 걷는 길, 인생의 길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한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걷는 길, 길을 걸을 때는 혼자 걸어도 좋고 동무가 있어도 좋다.

호퍼의 길동무는 부인이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풍경, 사람, 자연과의 조우를 그렸는데 호퍼의 그림 속 인간의 모습은 쓸쓸함과 외로움이 느껴진다.

홀로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주유소에서 홀로 서 있는 모습,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을 보는 사람을 보면 홀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현대인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 외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호퍼의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얻기도 한다.

이에, 호퍼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호퍼의 그림을 보면,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도 대화가 없다. 무심한 듯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고독을 발견하게 한다. 호퍼의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은 고독해서 아름답다. 호퍼의 그림 속 인간은 혼자, 둘, 여럿이 있다. 그런데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고독과 쓸쓸함이 다가온다.

호퍼의 그림은 길 위에서 만났던 일상이 호퍼만의 기법으로 표현이 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다.

호퍼는 스치듯 만날 수 있는 일상을 포착하여 빛의 반사로 화면에 배치해 보는 이로 하여금 그 동선의 자리에 있게 한다.

이승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에드워드 호퍼는 20세기 초 현대인이 마주한 정서를 예리하게 포착해 화폭에 담아내 현재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이번 걸작전이 팬데믹 이후 고립과 단절, 소외가 만연한 오늘날에 필요한 전시로서, 에드워드 호퍼에 대한 이해를 넓힐 뿐 아니라 고단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시공을 뛰어넘는 위안과 공감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한 매체의 기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고독, 외로움, 쓸쓸함을 공감해 미술관으로 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길은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길에서 만나는 자연, 풍경, 이미지를 통해 세상과 단절된 대화를 한다. 인간은 길 위에서 외롭지 않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소통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길에서 만나는 들풀이 말벗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끝없이 길을 향해 걷고 있다. 끝없는 길을 걷다 멈춤의 순간이 있다. 멈춤의 순간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정리되는 것을 알게 된다.

미술관 '길 위에서' 호퍼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술관을 향해 길을 걷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 미술관으로 향한다.

호퍼의 그림 전시를 보면서 그가 많은 시간 동안 했던 스케치, 스크랩 등을 통한 작품활동이 드디어 사람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

문정희 시인의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라는 시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한다. 시인의 도착이라는 시는 인생은 그저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름도 무엇도 없는 역에 도착했어/ 되는 일보다 안되는 일 더 많았지만/ 아무것도 아니면 어때/ 지는 것도 괜찮아/ 지는 법을 알았잖아/ 슬픈것도 아름다워/ 내던지는 것도 그윽해/ 하늘이 보내 준 순간의 열매들/ 아무렇게나 매달린 이파리들의 자유/ 벌레 먹어/ 땅에 나뒹구는 뭉고 이지러진/ 이대로/ 눈물나게 좋아/ 이름도 무엇도 없는 역/ 여기 도착했어'

그렇다. 어쨌거나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도착한다는 것이다. 너, 나 우리 지금 그 길 위에서 걷고 있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행동수칙

류 경 진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장

여름철 평균기온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전남지역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와 농업종사자가 많은 우리 지역은 특히 폭염기간 열손상 질환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해 폭염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무더위 폭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열손상 질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중추신경 기능장애로 심한 두통, 오한, 빠른 호흡, 혈압저하 및 의식장애를 나타내는 열사병.

둘째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어지러움, 극심한 무력감, 피로, 땀을 많이 흘리는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탈진이 있다.

셋째 팔, 다리, 복부 등 근육경련을 나타내는 열경련과 어지러움 및 실신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실신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온의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을시 혈액 내 수분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열부종이 있다.

심혈관질환자나 노인, 어린이는 열사병 위험인자에 포함되므로 무더위 야외활동 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열손상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더운 한낮에 작업이나 활동을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분과 적절한 염분을 섭취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만약 열손상 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자를 신속하게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의식이 있다면 휴식과 함께 수분을 섭취하게 하고, 근육 경련시 근육부위를 마사지하도록 한다. 열실신환자 발견 시에는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려주도록 하고 경미한 증상이라면 119에서 안내하는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의식소실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땐 119에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온열질환 및 응급처치법을 미리 숙지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장마철 대비 안전 확보하자

오 원 균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올해는 엘리뇨 현상으로 잦은 비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상기온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재난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독일에서는 락페스티발 중 낙뢰로 인한 부상자가 70명 발생했고, 프랑스에서는 한 공원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중 낙뢰로 인해 어린이1명 사망 10여명 부상자가 생긴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낙뢰로 인해 교통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 정전사고도 발생하는 등 최근 폭우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야외로 나가기 전에 기상상태와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바람이 치는 동안 실내에 있다면 문과 창문을 닫는다.

난로 및 파이프, 싱크대 같은 금속 물체에서 떨어져 있고,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빼두어야 한다.

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피한다. 자동차 내에 있다면 차안에 머물러 있는다. 차량은 주위에서 지면으로 흐르는 전류를 방산고, 모터사이클, 트랙터, 철조망, 빨랫줄, 금속파이프, 철로 된 기타 금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안전을 확보하는게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길일 것이다.

개활지에서는 산골짜기나 계곡과 같은 낮은 장소로 이동하고 나무와 같은 자연 상태의 피뢰침 아래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좋다.

평탄한 초원이나 목초지 내에서 번개가 치게 되면 지면에 납작하게 엎드리지 말고 야구 포수처럼 굽혀서 웅크리고 양손을 양 귀 위에 놓아서 고막이 터지는 것을 막고, 몸이 도체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몸이 지면에 닿는 면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가오는 장마철 사전에 안전수칙을 꼭 숙지한다면 낙뢰,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안전수칙을 익혀두자.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호남매일 www.homae.co.kr

발행·편집인 고제방 주필 서길원 편집국장 최춘의

대표전화 (062)363-8800 광주광역시 북구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사 장 실	(062) 363-0027	편 집 국 장	(062) 363-8800
광 고 국	(062) 363-0005	정·경 부	(062) 362-6116
편집국(FAX)	(062) 362-0078	사 회 부	(062) 362-6226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문 체 부	(062) 362-6116
인쇄처남도프린테크	(062) 943-0140	지역사회부	(062) 362-6226

구독료 한달 : 10,000원 /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새 희 망 새 언 론 새 천 년

지국안내

충 장……223-4123
무 등……224-4188
동 부……234-4235
학 동……225-0651
광 천……374-2120
화 정……374-3713
금 호……376-7153
쌍 촌……371-9584
상 무……381-5310
서 부……651-0004
송 암……362-4102
농 성……362-4102
진 월……671-7276
봉 선……675-5530
중 앙……521-5640
중 흥……433-1503
양 산……574-3745
운 암……521-4270
오 치……261-9461
문 흥……261-9462
일 곡……573-3200
동 운……525-8994
두 암……266-1920
첨 단……971-1920
신 창……955-0451
월 곡……941-9174
송정리……010-5524-3638

지사안내

목 포…010-8718-1234
순 천…010-9656-1383
광 양…010-9656-1383
나 주…010-3644-7272
나 주…010-3644-1309
담 양…010-3602-3550
곡 성…010-2632-4504
구 례…010-8597-0053
보 성…010-3626-4776
화 순…010-2430-5055
영 광…010-9860-5489
완 도…010-5066-4708
장 흥…010-5665-8354
신 안…010-4217-9480
강 진…010-3775-2369
장 성…010-3610-7824
무 안…010-9271-8517
여 수…010-8587-2288
함 평…010-3095-5842
영 암…010-4604-3742
진 도…010-8525-4567
해 남…010-3471-6542
광 산…010-7613-4320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기사제보 · 독자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mae.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